나주시, 영산포 옛 영광 되찾기 나섰다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 도전
거리정비·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
시·영산포발전협 추진 방안 논의

나주시는 지난 10일 영산포 상권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 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국내 유일의 내륙 항구도시로 번영을 누렸던 나주 영산포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 도전이 시작됐다.

나주시는 최근 영산포발전협의회와 상권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해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리정비·기반공사 등의 '상권 환경 개선'과 테마존 운영·특화상품 브랜드개발을 촉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전통시장법상 조건을 만족하는 곳으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해야 하며,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기준도 적용된다. 반드시 상업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하고,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상권이어야 한다. 도소매 영업점포수는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5년 간 60억원에 최대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나주시와 영산포발전협의회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임대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상인동 협조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나상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 국장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한 영산포 지역 상권에 자생적 경쟁력을 더해 줄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기자 노트

'불통' 유감

김 용 기
중부 취재본부장

장흥군수와 장흥군의회 의원들간 소통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이후 3년이 지났지만 정종순 장흥군수와 군의회 의원들과는 멀고 먼 불통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도 정 군수와 군의회 의원간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동안 감정골이 깊어진 의원들은 군정 질의를 통해 군수를 성토했고 군수는 종전 입장을 고수해 설전이 오갔다.

회기 첫날인 지난 1일 김재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군정에 대한 어두운 기사는 정 군수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다"며 날선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정 군수가 프로젝트사업으로 내세운 1조 2000억원대 '수소연료 발전사업'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정 군수를 상대로 한 지난 8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일부 방청객과 의원들간에 고함이 오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전남 17개 지자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들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를 요구했으나 정 군수는 "당초 방침대로 선별적 지원에 변함이 없다"며 보편적 지원 거부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백광철 의원이 "고집이 세다"며 대립각을 세우자 방청객에서 '군수에 대한 인격모독'이라며 군수 옹호를 연호해 의사당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내 편과는 소통, 네 편과는 불통'의 정 군수 군정 스타일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군수는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6월 군 산하 간부들 충성을 위한 심야 술판, 지난 2월 언론보도 분석발언으로 빚어진 '언론 길들이기' 논란, 공무원 측근인사 파문 등이 대표적으로 공직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지지했던 민심과는 소통하고 반대편 세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정치적 논리라고 볼수 밖에 없다.

단체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모든 군민을 아우르는 정무 감각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주문하고 싶다. 불통으로 얼룩진 불명예 장흥군수라는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남은 1년여 대범한 자세로 소통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

/kykim@kwangju.co.kr

장흥 탐진장학회 소외계층 대학생에 3900만원 장학금

광주지검 장흥지청 산하 '(재)탐진장학회(이사장 고홍천)가 23년째 지역 내 소외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재)탐진 장학회는 지난 10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과기대 3학년 김상아 학생을 비롯한 26명 대학생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진〉

지난 1998년 설립된 탐진장학회는 올해까지 장흥과 강진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1262명에게 총 6억5414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레스토랑' 운영자 모집

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은 '2021 해동문화예술촌 레스토랑'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직접 운영이 가능한 식품접객업 관련자이며 청년·중장년 연합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18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를 참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6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이메일을 통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설명회 신청서는 해동문화예술촌 이메일(damyanghd@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담양군과 문화재단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문화적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주방 시설·기물 등 외식업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서 창업기획, 매장운영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 창업인의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과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여수 디오션워터파크 19일 본격 개장

남해안 최고 종합해양휴양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사진〉가 철저한 방역과 안전 중심 운영을 통해 오는 19일 본격 개장한다.

13일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 손실이 예상됨에도 호남지역 최대 물놀이 시설 랜드마크로서 지역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실외·실내 시설을 전면 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오션 워터파크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증이 본격 확산된 지난해 입장객 수가 평년에 비해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워터파크 운영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 특성상 여름 내내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디오션 워터파크는 매년 4월 워터파크 부분 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으로 분주했지만 올해는 개장 후 방역 강화와 안전 운영에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고객들의 안전 물놀이를 위해 젖어도 차단기능을 유지하는 코팅 처리된 물놀이 마스크를 제작해 입장객 모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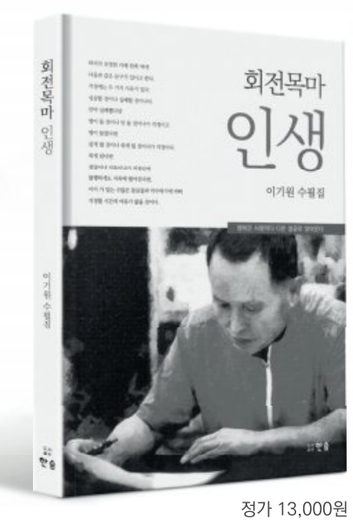
입장 시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발열 상태 확인과 모바일 문진표 작성으로 증상 여부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고 무인 발권기로 언택트 발권을 권장한다.

락커와 샤워실은 간격을 띄워서 사용하도록 했고 모든 공용시설과 놀이기구, 대여 물품과 시설에 대해서도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실내 워터파크는 하루 2~3번의 클린 타임으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파도풀과 유수풀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과 일정한 간격 유지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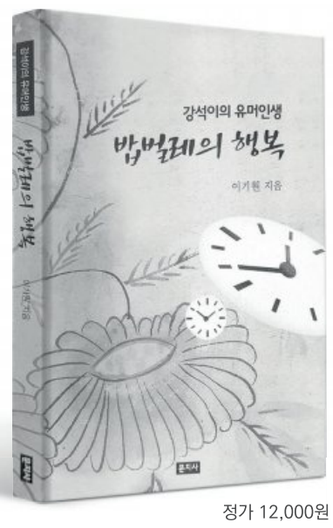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밥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